

# 살고 싶은 임실 가시화

### 군, 주요업무보고회... 세부사업별 추진계획 등 논의

임실군이 올해 '살고 싶은 임실'의 합찬 도약을 위한 첫 포문을 열었다. 16일 임실군은 군청종합상황실에서 심민 군수의 주재 아래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회'를 갖고, 활기찬 군정 확립을 위한 핵심·중점사업의 종합적인 점검과 추진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보고회는 ▲2017년 주요업무계획 및 세부사업별 추진계획 ▲2016년 업무추진 성과 점검 ▲2018년도 국가 예산 신규사업 발굴상황 등으로 진행됐다.

보고회는 부서별 핵심사업에 대한 사업별 로드맵을 종합적으로 논의하고, 각 부서별 6개 쟁점현안에 대한 추진계획을 함께 공유하는 등 활발한 토론이 이어졌다.

특히 임실 미래비전 및 발전전략 수

립과 심진강 에코뮤지엄 조성, 2017 제3회 임실N치즈 축제, 성수산 왕의 숲 조성, 임실군관광지내 장미공원 조성 등이 집중 논의됐다.

군은 이날 지난해 임실N치즈 축제 성공적 개최와 2년 연속 3,500억원 예산, 목적도 종합관광 레저특구 개발 토대 마련 등 굵직한 성과를 토대로 올해에도 '살고 싶은 임실'을 보다 가시화 하는 등 사람이 모이는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간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이를 위해 올해에는 임실을 도심권 개발을 비롯, 목정호·임실치즈·성수산 핵심관광거점 개발, 임실형 농식품 6차산업화, 맞춤형 생활복지, 지역 인재 육성을 중점 추진키로 했다.

심민 군수는 "올해 계획한 2017년도 주요업무들을 차질없이 추진함으

로써, 지역발전을 본 궤도에 끌어올리는 등 성과중심의 군정 역량을 펼쳐 주길 바란다"며 "부서별로 명확한 방향과 목표를 정해서 신규프로젝트로 삼을만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국가예산확보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심민 군수는 특히 "올해 주요사업에 대한 차질없는 추진으로 지역일자리 창출과 생활경제권 활성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심민 군수는 지난해말 2018년도 국가예산 확보 신규사업 발굴상황을 보고받고, 지난 4일에는 국토부를 방문해 심진강(목정호) 제2순환도로 개설을 건의하였으며, 이어 6일에는 노후상수관망 개량사업 건의를 위해 환경부를 방문한 바 있다.

/임실=진홍영 기자

# 박우정 고창군수, 군민과의 열린 대화 시작

### 주요 업무 계획·주민들의 의견 청취 등

박우정 고창군수가 소통과 공감으로 행복을 여는 '2017 군민과의 열린 대화'를 시작했다.

16일 흥덕면을 시작으로 다음 달 3일까지 14개 읍면을 순회하며 진행되는 '군민과의 열린 대화'는 지난해 군정성과와 2017년 주요 업무 계획을 비롯해 지역 발전을 위한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흥덕면사무소 회의실에서 열린 첫 군민과의 열린 대화에는 박우정 군수와 최인규 군의장, 이호근 도의원, 이봉희 군의원, 기관사회단체장과 마을 이장, 새마을지도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군정발전을 위해 봉사한 자랑스런 군민에 대한 사상이 이뤄졌으며 참여자들이 군정에 대한 궁금한 점과 건의사항 등을 편안한 분위기에서 대화하며 지역 발전을 위한 비전을 공유하는 시간으로 이뤄졌다.

흥덕면에서는 현안사업으로 사포천 소하천 정비사업 선정지원, 면 소재지 인도개설, 흥덕 터미널 주변 도로 덧씌우기, 내사마을 용배수로 정비공사, 대촌마을 공관정리 배수로 공사, 석우마을 담수산무 들레 쉼터 조성사업 등이 논의됐다.

또한 수침교의 교량을 옛 문헌과 지명에 맞게 설계하는 것 등 현안건의와 일반건의 6건 등 다양한 분야의 의견이 건의됐으며 박우정 군수는 사

업의 타당성을 검토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박 군수는 열린 대화 전 고창에서 직접 생산하는 복분자와 황토를 활용한 기능성 사료와 해수·담수어 사료를 전문적으로 생산, 판매하는 흥덕면 소재 (주)하스프를 방문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어 후포경로당을 찾아 어르신들과 답소를 나누며 훈훈한 시간을 보냈다.

박우정 군수는 "고창군이 더 크게 성장할 수 있으려면 군민 모두의 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의지가 중요하고 이 속에 화합과 협력이 수반되어야 한다"면서 "민선 6기 고창군은 군정의 모든 분야에서 군민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소통하면서 이를 군정에 반영해 군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고창군을 꼭 만들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 남원시, 조사료 생산 33억 투자 지원

남원시는 2017년 자금 조사료 생산을 위해 7개 사업에 33억원을 투자 지원하고, 조사료 3만톤 이상 생산·고급육 생산·산유량 증대 등 소 사육에 이음토록 하여, 45억원의 사료비 절감을 도모하고, 농가 경영 안정과 소득·향상을 나선다.

사업별로 조사료 작입 및 정비지원에 20억원, 종자 및 기자재에 9억원, 장력교포품질향상에 4억원 등이다.

남원시는 911 농가에서 3만3,000여두의 소가 사육되고 있고, 연간 조사료 필요량은 10만톤으로, 이중 재배 조사료 25%·뽕짚등부산물 55%·수입건초 20%가 이용되고 있어, 비용절감과 생산성 향상에 재배 조사료의 확대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의 1,500ha 3만톤을 장기적으로 2,000ha 4만톤 이상 확대하는 계획을

수립 추진 중에 있다.

그 동안 조사료 전문영농법인 20개 육성과 기계화 장비의 지원을 통해 수확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재배기술 향상·우수한 조생종 종자 공급 등 시의 적절한 지원으로 생산 기반을 확대했다.

또한, 경영체 기자재지원, 종자구입비 추가지원(연 2억원), 재배지 입차장려금 지원 등을 통해 20% 수준의 낮은 자기부담으로 조사료생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타 지역과 차별화있는 자체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왔다.

향후 남원시는 매년 40억원을 투자 지원하여 조사료생산의 확대에 집중하고, 하계조사료단지(옥수수, 연맥) 조성 등, 기존의 지원 사업 강화와 지역에 적합한 조사료사업 육성을 국비 지원 사업과 연계 추진하여 농가의

### 사료비 절감 도모 등

경영안정과 소득극대화에 힘을 계획이다.

/남원=유영철 기자

# 순창군, 읍면동 복지 허브화 사업 확대 추진

### 맞춤형복지팀 신설 등

순창군이 군민이 체감하는 맞춤형복지를 실현하고자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읍면동 복지허브화사업은 기존 복지사무를 수행하던 주민생활민원계와는 별도로 맞춤형복지팀을 신설하여 복지이장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협력을 통해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장애인, 노인 등 거동이 불편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방문상담을 진행한다.

지난해 순창읍에 맞춤형복지팀을 신

설, 시범운영하였으며 올해는 동계면을 중심으로 인계면과 적성면, 구립면을 중심으로 쌍치면과 복흥면을 2개 권역으로 나누어 복지허브기관으로 설치 및 운영할 계획이며, 2018년에는 풍산면을 중심으로 유등면과 금과면, 팔덕면을 묶어 실시할 예정으로 모든 읍면이 복지허브기관으로 탈바꿈하게 된다.

현재 순창군의 취약계층 인구는 6,400여명으로 전체인구 대비 약 21%를 차지하고 있어 읍면동 복지허브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될 경우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민간주도의 문제

해결 능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작년 8월 출범한 순창읍 맞춤형복지팀의 경우 2,851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복지 상담을 실시하여 그 중 48명을 통합사례관리대상자로 선정, 지역 주민의 욕구에 맞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233건 제공 및 2천만 원 상당의 현금 및 물품을 지원하였다.

한편 정부에서는 올해에도 복지허브화사업의 정착을 위하여 읍면당 840만원의 사례관리사업비 및 찾아가는 복지차량을 지원할 예정이다.

/순창=이양원 기자



# 한방 무료 진료 역할 '특독'

### 임실군, 읍·면 경로당 순회... 침·뜸 시술·한약 처방 등

임실군의 '찾아가는 경로당 한방 무료진료'가 마을 어르신들의 건강도우미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16일 군에 따르면 올해 읍·면 경로당을 순회하며 추진 중인 한방진료 및 건강상담 프로그램이 마을 어르신들에게 큰 호응을 얻으며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경로당 한방진료는 의료원 방문 보건팀이 직접 방문해서 의료상담 및 침·뜸 시술, 한약 처방, 혈압·혈당 측정, 장애발생 예방교육 등을 진행하고 있다.

한방진료 대상은 임실군 관내 경로당 84개소이며, 군은 올해 마을 어르신 1천여명을 진료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순회 진료에는 한방중

풍예방 교육도 함께 이뤄지고 있다. 이 교육을 받으면 중풍에 대한 전조증상 등 예방법을 알게 돼 자가 관리가 가능해진다.

또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환자들은 한방진료실과 연계, 치료 받을 수 있다.

군은 찾아가는 한방진료와 함께 치매와 건강생활실천, 방문보건사업, 영양교육,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 구강보건 등 보건 관련 지식 홍보도 병행할 방침이다.

최근 한방무료진료를 받은 어르신들은 "한방진료를 받고 싶어도 몸이 불편하다 보니 읍내를 나갈 수가 없었다"며 "그런데 이렇게 찾아와서 한방진료를 해주니까 너무 고맙고 감사할 따름이다"고 입을 모았다.

/임실=진홍영 기자

# 지역특이점



### 임실군연합회, 장학금 100만원 기탁

생활개선 임실군연합회(회장 이신영)는 16일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 인재육성을 위해 임실군에향장학회(이사장 심민)에 1백만원의 장학금을 기탁했다.

생활개선 임실군연합회는 600여명의 회원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농업인 학습단체로 지난해 꽃길 조성과 쌀국수 판매 등으로 얻은 판매 수익금 일부를 심민 이사장에게 전달했다.

심민 이사장은 "새로운 변화, 살고 싶은 임실"을 만드는 데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지역 인재 육성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신영 회장은 "필요한 곳에 꾸준한 온정을 베푸는 것이 참된 봉사"라며 "앞으로도 독거노인, 소년소녀 가장 등 소외된 이웃과 함께 나눔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 전북은행 순창지점, 선물꾸러미 기탁

전북은행 순창지점에서는 설 명절을 맞아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16일 순창군청을 찾아 이웃사랑 선물꾸러미 150상자 시가 375만원 상당을 기탁했다. 선물꾸러미에는 라면, 참치, 식용유 등 총 9가지 생필품이 담겨져 있다.

이날 기탁식에는 이정영 부행장과 황인철 전북은행순창지점장 등이 참석했다. 이 부행장은 "민족의 명절 설날을 맞이해 소외계층 이웃들이 훈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다"면서 "전북은행은 앞으로도 지역 사회의 다양한 봉사활동과 이웃사랑 실천을 통해 언제나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은행이 되겠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 순창군, 취약노인 지원시스템 생명보호 일등공신

순창군이 취약노인 지원시스템(U-care)을 통한 응급사고 예방으로 노인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큰 몫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은 지난해에 동안 U-care시스템 인지를 통해 화재, 가스 등 대형사고를 예방한 건수가 102건이라고 밝혔다.

U-care 시스템의 교체나 수리를 위한 방문은 1,665건,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방문상담건수는 44,991건에 해당한다.

U-care시스템은 응급발생 상황 시 대처가 취약한 독거노인 등을 대상으로 활동·출입·가스누출·화재를 감지하는 센서를 통해 24시간 활동상황을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이다.

순창군은 지난 2007년부터 국가사업에 선정돼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1,421가구 취약노인이 혜택을 받고 있다.

취약노인 지원센터,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119와 네트워크를 구성해 응급상황을 효과적으로 처리하고 있어 홀로 사시는 독거노인들의 사고 예방

에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

실제 지난 11월 금과면에 사시는 모 할머니는 적외선 의외기를 켜놓고 주무시다 적외선 과일기가 가열되어 화재로 번졌다. 응급안전 시스템이 작동되고 센서가 울러 주무시던 할머니가 초기 조치를 취하고 119에서 출동해 화재를 진압해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었다.

또 팔덕 구룡마을에서도 홀로사시는 할머니가 가스불에 음식물을 올려 놓고 읍내 시장에 나간사이 화재가 발생했고 이를 감지한 U-care 시스템을 통해 119대원들이 출동해 화재를 진압했다. 자칫 대형 화재로 번질 뻔한 사고를 예방한 순간이었다.

독거노인 생활 관리사들의 사고예방도 눈에 띈다. 현재 순창군에는 독거노인 생활관리사들이 27명 활동하고 있다. 750명의 독거노인을 관리하고 있으며 주 2회 전화 방문과 주 1회 방문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순창=이양원 기자

# 남원소방서, 주택용 소방시설 더블 보상제 운영

남원소방서(서장 이홍재)는 작년 8월부터 주택용 소방시설 초기진화 더블(double) 보상제를 운영하고 있다.

더블보상제란 주택에서 불이 났을 때 사용한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을 보상해주는 제도이다.

다시 말하면, 소화기를 이용하여 초기진화에 성공하거나 단독경보형감지기의 작동으로 인하여 대피에 성공한 경우, 주택용 소방시설을 사용된 수량의 2배로 보상을 준다.

남원소방서의 관할면적은 1248.79k

m이고 소방관 한명 당 비례면적이 7km정도다. 화재 진화는 골든타임을 넘기지 않는 것이 중요하지만 남원은 소방서 관할면적이 비교적 넓고 원거리에 위치한 마을이 많아서 골든타임 내 소방차가 도착하기 힘든 실정이다.

이에 남원소방서는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와 촉진하고 사용률을 높여 적극적인 화재 초기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블보상제를 마련했다.

남원소방서 관계자는 "개정된 법률에 의해 2017년 2월 4일까지 모든 주택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한